

구멍가게의 추억



김준형의
청명과니

필자가 어릴 적,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다. 당시의 구멍가게는 어린이들의 천국이었다. 대부분 간판도 없는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쭈쭈바 같은 아이스크림도, 뽕뽕이 같은 과자도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이 되자,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생겼다. 슈퍼마켓은 구멍가게보다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싸다. 사람들은 구멍가게에 발길을 끊고, 슈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당연히 많은 구멍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래도 살아남은 구멍가게들은 간판을 달기 시작했다. 간판에는 '○○슈퍼'라고 되어 있었다. 그렇게 슈퍼마켓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자, 대형마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들은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했으며, 값도 싸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을 떠나서,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아남은 슈퍼마켓들은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슈퍼마켓들이 '○○마트'가 되어 버렸다.

최근 흠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대주주인 MBK의 경영 방식에 대하여 비난도 있었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의 경영난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한다고 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부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e커머스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터치 몇 번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신세계에 폭 빠져 들었다. 이제는 e커머스가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어부지리'의 고사처럼, 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는 동안, e커머스는 어부가 등장해서 모두 잡아먹는 꼴이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였다. 대형마트의 각종 악재는 수익성을 악화시켜 상품의 원가상승을 불러왔고, e커머스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패배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을 '장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으로 빠르게 바꿔 버렸다. 이런 생활 패턴은 대형마트에게도 재래시장에게도 큰 재앙이다. 물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정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e커머스를 규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e커머스에 규제를 가하면, 이 규제를 피한 또 다른 강자가 유통업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

구멍가게가 문을 닫을 때 사장님들은 '○○슈퍼'라는 간판을 달았다. 슈퍼마켓이 사라질 때도 '○○마트'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생활패턴과 시대의 흐름은 법조항 몇 마디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지독한 오만일 뿐이다.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도 서울 거리에는 마차가 다니고, 서울 시민들은 북청물장수에게 한강물을 사서 마시고 있을 것이다. 시대의 큰 변화는 그렇게 해서 막아질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

1910년대에 생긴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 대형마트, e커머스로 유통시장은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면, 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하여 '현상유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ESG와 개구리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먹고 난 뒤 하루종일 그것보다 더욱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보낼 것이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대표작 '개구리를 먹어라'라는 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구리를 먹어야 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하기 싫은 것들을 가장 먼저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고 미루게 된다면 삶을 순순환으로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ESG

(환경·사회·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의제가 아닌 미국 국익을 강조하며 관세정책을 내밀자,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ESG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까지 기후공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옹호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법정대응을 하지 않았다. 마크 우에다 SEC 대행은 "현행 규정으로도 재무적으로 중요한 기후위험은 이미 공시가 가능하다"며 "새 규정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SG 정책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도 속도조절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내 ESG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난감해

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주요국 동향을 참고해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순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더디더라도 국제적으로는 ESG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의미다.

ESG 공시기준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에 따라 반 ESG 흐름을 따라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국내 주식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에는 반 ESG가 쉽지만, 어렵더라도 지금 ESG를 내재화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이름 없는 꽃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볼 수가, 48년생 기쁨과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 60년생 바람이 불어도 모두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72년생 공짜를 바라지 말고 투자를 해야, 84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37년생 주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49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6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73년생 가계부를 써보고 자금계획을 새롭게 하도록, 85년생 못생긴 새가 노래를 잘할 리가 없다는데,



38년생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은 신념대로 설계를, 50년생 분수를 지켜야 도리, 62년생 차는 다음에 바꾸는 것이 어떨지, 74년생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 화합을 해야, 86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성실한 마음으로,



39년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리해볼 것이다, 51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이다, 63년생 가족 간에도 신용은 지켜야 한다, 75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된다, 87년생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해야만,



40년생 존재가 아름다우니 힘을 내자, 5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일이 먼저 아닌가, 64년생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76년생 베풀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치, 88년생 일에 의미 부여만 하다가 직장을 어쩌다 날지,



4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53년생 이성을 만나 지출이 많다, 65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77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8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42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려 하겠다, 54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흡족하다, 78년생 이별하려거든 확실하게 하고 정리를 해야, 90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43년생 오후 금전운이 해결된다, 55년생 어떤 결과가 다 내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67년생 남들 기준도 생각해야, 79년생 궁병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니 버릴 것이 없다, 9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 정성스러운 기도를,



44년생 일의 마무리도 시작만큼 중요하니 정리정돈을, 56년생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하니 부부간 협력을, 68년생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80년생 생각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92년생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 생각한다,



4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뜻을 이룰 수 있다, 57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69년생 가까운 사람의 병문안 갈 일이다, 81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93년생 땅이 꺼지면 어쩌나 하는 우울한 마음이다,



46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사람은 만족을 모르니 마음을 비워라, 58년생 자신감을 내면에서 온다, 70년생 입을 무겁게 하고 사람을 만나라, 82년생 뛰어나고 모자란 것은 시간이 가면 분명해진다, 94년생 재력이 인간성과 비례하니 성실하게,



47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일거리를 맡는다, 59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7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지친다, 8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서류를 잘 살펴서, 95년생 태어남 자체가 고생하고 사는 것으로 인생사이니,

김상회의四季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직원 인사도 중요하지만, 간부 인사는 때때로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부를 임용할 때는 신중히 처리한다. 중견기업에서 총본부장을 잘못 기용해서 직원 사기가 푹 떨어지고 내부 분란이 심해진 경우가 있었다. 기업 오너 부락으로 그 본부장의 사주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편관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편관 사주는 자리 욕심이 많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책임감이 강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회사에서는윗사람의 신임을 얻는다. 회사에 분란을 일으킨 본부장은 너무 강한 편관 뿐만 아니라 인성도 문제였다. 권력과 자리 욕심이 컸는데 이기적이고 편협했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쥐어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기 일쑤였다. 자기를 따르는 직원들만 먼저 승진시키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렇지만 자기가 편애하던 직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가차 없이 한직으로 밀어냈다. 출세에 도움이 용도가 없으면 헌신처럼 버리는 꼴이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니 전체 회사 분위기가 거칠어지고 냉랭해졌다. 간부 하나를 잘못 기용해서 회사 풍토가 엉망이 되었다. 기업의 총수는 그때부터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 사주를 들고 필자를 찾아오곤 했다. 사주는 한 사람의 인생행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속해있는 조직의 행로를 결정하기도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이드의 월드퍼즐을 증가시켰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3	5		1	9			
	1		2					
						3	8	
		1	4				2	
		9		2	1			
4					1	8		
	6	8						
					8	6		
			9	7		4	3	8

		4		8	3		7	
	6	3			7	2		
1								
7							4	
	2	6					3	5
	4							1
								6
			7	6			5	3
5		3	4				9	

8	9	7	9	2	6	2	9	1
9	9	2	8	7	1	2	6	8
6	1	2	2	9	8	8	9	7
9	9	8	1	6	2	8	7	2
7	2	1	8	2	9	6	8	9
8	2	6	9	8	7	1	2	9
1	8	8	2	9	9	7	2	6
2	6	9	7	8	2	9	1	8
2	7	9	6	1	8	9	8	2
2	2	6	8	7	8	1	9	9
7	8	9	1	2	9	2	8	6
9	8	1	6	2	9	2	8	7
1	9	2	2	8	6	7	2	8
6	9	8	7	1	2	9	2	8
2	7	8	9	8	6	9	1	2
8	6	7	9	2	8	2	1	1
8	1	2	2	6	7	8	9	9
9	2	9	8	1	7	6	2	2